

요들 만나면

이웃·사회

모두가 행복



‘광주 엔시안 요델클럽’



광주 엔시안 요델클럽 회원들. 원쪽부터 김진 회장, 김한범 지도자, 박미선, 서봉옥, 임진하, 윤을현, 이아영, 손행자, 김성준, 문선미씨.

“배부터 목까지 관(管)으로 생각하며 품으세요. 요~ ~ ~ 후~ ~ 리~”

지난 7일 오후 광산구 첨단청소년수련관 1층 연습실. 요들 지도자인 장미정(42) 씨의 설명에 맞춰 30여 명의 요들 동호인들이 본격 연습에 앞서 발성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회원들의 연령대도 다양하다.

“...요로로로 우우리 뒤리리리 뒤리리리리 요우리리 오 로로우리~ ~”

회원들은 ‘가을’, ‘내 마음의 꽃’, ‘호마탈(hoamatl)’, ‘벼론트의 건맨’, ‘검은 영양 사냥꾼’ 등을 이어가며 아코디언과 기타 반주에 맞춰 2시간여 동안 흥겹게 노래했다. 입문한지 2개월됐다는 중년의 한 남성회원은 회원들앞에서 스스럼없이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과 자연친미 요들송=‘광주 엔시안 요델클럽’(회장 김진)은 지난 77년 청단한 관록있는 요들송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회원수는 60여명, 매월 1·3주 토요일 정기모임에 이중 40~50명이 꾸준히 참여할 정도로 열의가 높다. 엔시안(enzian)은 에델바이스, 알프로즈와 함께 알프스 산맥에 피는 3대 꽃으로 손꼽힌다.

요들(jodel, yodel)은 스위스 알프스 지방과 오스트리아 티롤지방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는 독특한 창법의 노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김홍철씨가 68년 스위스로 건너가 요들송을 배워 국내에 보급 되기 시작했다. 요들은 자연에 대한 경이 감과 사랑 등 아름다운 가사말과 경쾌하고 빠른 리듬, 이름다운 음색이 어우러져 눈을 이고 있는 알프스 산맥과 푸른 고산 초원에

서 뛰노는 ‘소녀 하이디’를 연상케 한다.

“알프스의 높은 산 와간곳에 있던 목동이 소리를 통해 마을에 소식을 전달했죠. 산에 올라가서 내 요들이 메아리칠 때 기분이 좋습니다. 머리를 물리는 두성(頭聲)으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스트레스 찌꺼기를 모두 쏟아버리는 기분이죠”(장미정 지도자)

부부이나 자녀 등 가족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것도 요델 클럽의 특징이다.

3남매를 데리고 온 김선희(40)씨는 “플루트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자녀들의 성격과 생각을 밝게 키우고 싶어 동호회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시누이·율케 사이인 이아영(46)·박귀숙(45)씨도 “즐겁게 노래를 통해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 친구처럼 지낸다. 아이들에게 요들을 가르쳐주고 노래하는 시간이 많아 더욱 가족이 화목해진다”고 강조했다.

엄마와 함께 요들을 배우고 있는 초등 6학년 강경은(13)양은 “소풍이 장기자랑시간에 취미로 배운 요들을 불려 친구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자랑했다.

◇성격과 생각을 밝게 키워=‘광주 엔시안 요델클럽’은 창립 이후 요델의 대부인 김홍철씨를 초빙해 강습회를 갖으며 매년 무대에 올라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지난 2005년 4월에는 일본 다마가와 알프스클럽과 합동공연을 갖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영호남 요들 축제와 ‘무등산 풍경소리’ 공연 등 17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무대를 마련했다.

특히 실버 요양병원과 첨단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 이웃사랑 나눔에도 열성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광주 아시아 공연예술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구례 산수유축제, 4월 담당 죽록원 공연과 고흥 보은 요양원 공연, 11월 정기 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동호회원들은 알프호른, 오르겔리, 카우벨, 아코디언, 우드스푼 등 스위스 민속악기에도 관심이 많다. 매주 토요일 정기모임에서 요들을 배우는 한편 악기강습을 통해 하나하나씩 연주법을 익히고 있다.

동호회의 최대 현안은 ‘연습실’이다. 현재 첨단청소년수련관을 빌려 쓰고 있으나 많은 회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절실히 한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오르겔리



▼ 우드스푼



▼ 카우벨



‘요들 연주’ 스위스 민속악기

요들 반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위스 민속악기는 알프 호른과 오르겔리, 카우벨, 아코디언, 우드 수풀 등 다양하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악기인 알프호른(alphorn)은 스위스 관광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3.5m 길이의 관악기이다. 음의 조정은 바람의 세기와 입술의 모양으로 하며 배에서 나오는 힘으로 음이 난다.

아코디언과 같이 풀무를 움직여 연주하는 ‘오르겔리’(Orgeli)는 악기의 크기에 비해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풍부하게 나며 매력적인 음색을 갖고 있다. 어깨에 매는 아코디언과 달리 손에 들고 연주하며 건반대신 버튼으로 데 있다.

카우벨(cow bell)은 소 목에 디는 방울(위낭)처럼 생긴 금속제의 체령(體鳴)악기이다. 25개가 한 세트가 구성돼 있으며 크기에 따라 다른 음을 낸다. ‘우드 스푼(wood spoon)은 문자그대로 ‘나무 숟가락’이다. 손가락 2개를 맞대 무릎에 부딪혀 경쾌한 리듬을 만드는 일종의 타악기이다.



한정승인공고
평 범오진(581217-1622418) 삼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년 2월 24일 산속한정승인
공고인: 김순금
한정승인수리일: 2009. 2. 26
공고기간: 2009. 3. 14 ~ 2009. 5. 13
연락처: 광주 남구 승촌동 35-1
김순금(017-602-2843)

한정승인공고
방 정유기(450602-1653123) 삼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제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제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년 3월 3일 2009. 3. 9
한정승인수리일: 2009. 3. 14 ~ 2009. 5. 13
연락처: 광주 남구 승촌동 954-84
정유기(010-8485-3770)

결산공고
24시간 FAX 및 E-mail로 접수합니다.
光 明 日 報 광고 마케팅국
● 전화 : (작) 062-227-9600
● FAX : 062-227-9500
● E-mail : design@kwangju.co.kr
dd8111@hanmail.net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쉽, 설득력 향상과정 자격증 취득

①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김명과 김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② 모집인원: 각반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직장인·일반인·주부·기업체장 및 학생,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

③ 강의일정 및 시간

• 주간(매주 화요일) 14:00~16:00

• 아간(매주 금요일) 19:00~21:00

④ 교육기간: 2009년 3월 9일 ~ 6월 28일

* 교육료: 실습비(교재비)

(실습70%, 이론30%)

⑤ 교육과정: 대화 및 연설기법, 발표력, 남암에 서 두려움없이 말하기, 각종 행사 사회 진행

요령 및 연설문 낭독 요령, 각종 원고 작성요령, 리더 및 지도자로서의 품위 향상 교육, 지방선거 공식선거 출마 연설문 작성 및 지도

⑥ 원서접수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2009년 2월 9일(월) ~ 3월 6일(금)

• 등록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 등록장소: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호남관4층)

⑦ 등록방법(수강료: 150,000원)

• 직접접수 또는 전화 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광주은행 134-122-158135
(예금주: 광주대 평생교육원)

⑧ 수료 후 특전: 수료증수여(총장명의), 스피치자

도사 자격증수여, 각종 기관연설원 파견, 각 기업

건설면허

- ▶ 건설업 양도 양수
- ▶ 건설업 구조조정
- ▶ (분할 / 합병)
- ▶ 신규취득 / 기업진단



부성 M & A
TEL: 062)670-2167, 2168
FAX: 062)670-2475 HP: 010-5692-9998
☎ 02)773-5690~1

전통 침·뜸 공개 강좌

“알기쉬운 침구학세미나”



| 본강의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 체침, 부항, 경혈, 경락, 이침, 비만침법, 미용침법, 중국수침, 약용식물관리, 한방기초

★ 본강의 : 매주(금) 2시~5시(4개월)

★ 월회비 : 90,000원(교재포함)

★ 추나침구사 등 중국자격증 취득기회

★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중앙아시아 등 해외이민, 취업기회

★ 중국 요녕중의약대학 및 중국연구원 자격증 취득기회

| 공개강좌 및 설명회 일정 안내 |



3월 20일(금) 오후 2시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 치료상담 및 진료는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세요.

☎ 1544-5359/062)236-3516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